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2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수, 금요일 (오전 9 시-오후 8 시). 화 (오전 9 시-오후 6 시),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	-------	-------	-------	-------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시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뜻을 발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인의 드높은 품위를 지켜가게 하소서.
-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도직에 부르셨으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이 세상에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 아멘.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6/5	이 그레이스	김 유스티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6/12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6/19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6/26	박 니콜라스	김 유스티나	성인복사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5/29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커피를 마시며

윤 건 마르코 | 가수

서촌, 다들 잘 아시죠? 도심 속의 시골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동네입니다. 마치 삭막한 도심 속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내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 버렸고, 특히나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곳은 서촌, 그중에서도 효자동의 적산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개인 작업실과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고, 그로부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은 저의 음악 작업 공간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 역할까지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밤샘 음악 작업을 끝내고 마시는 한 잔의 커피.... 그건 제게는 삶의 위안이자 생활의 활력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효자동 적산가옥의 커피 향은 제게 아무 느낌도, 그 어떤 청량감도 전해주지 못하는 그저 그런 커피 향이 되어 버렸습니다. 효자동 적산가옥의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커피 향의 배신이었을까요? 아무튼 저는 조금씩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일상의 무미건조함을 느낄 때 여행을 떠나듯, 효자동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말이죠. 저는 그렇게 정든 효자동을 떠나 얼마 전 홍대 쪽으로 작업실과 카페를 옮기게 되었고, 다시 저는 하느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같은 그런 향기, 그런 따뜻한 느낌의 커피 향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 향이 변해버린 건 동네의 탓도 적산가옥의 탓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되돌아보면 효자동에서의 8년이라는 시간. 일적인 면에서부터 성격적인 부분까지 참 많은 변화를 겪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변화들이었죠. 그 변화들을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달렸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밤샘 음악 작업, 또 수많은 사람과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이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해 놓은 것들을 흑시라도 잃게 될까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망설이게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저 제자리를

공동체 소식

**봄 하마йка 축제: 6/5 (오늘)**

산클레멘테 본당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하마йка 축제가 오는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평협 임원회의: 6/12 (일) 오후 7시**

6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주일인 6월 12일(주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6/19 (일) 오전 8시 주일미사 후**

6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세째주일인, 6월 19일 오전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맴돌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최고의 개혁가이자 변화를 즐기고 그것을 위해 늘 노력했던 분이었고, 바로 그런 모습이 하느님이 원하는 모습이자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일 텐데, 저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커피 향이 바뀌었다느니, 적산가옥이 이제 지루하다느니 영똥한 핑곗거리만 찾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변했던 건 저의 마음가짐인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또 한 잔의 알싸하게 번져오는 커피를 마시며 하느님께 다짐의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작은 휴식 같은 이 커피 향이 변하지 않고 더욱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끝없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장례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 있으면 우선 신부님을 모셔다 병자성사를 받게 하고 집안을 깨끗이 정돈합니다. 임종을 맞으면 온 가족과 이웃 신자들이 「상장예식」에 수록된 '임종예식' 기도를 바치거나 성가를 부르거나, 자유기도, 묵주기도, 성경 봉독 등을 하면서 그의 운명을 돕습니다. 운명하고 나면 바로 성당에 연락해서 연령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명한 뒤 바로 수시(收屍, 시신이 굳기 전에 수습하여 거두는 것)를 합니다. 죽은 이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도록 가족과 신자들은 밤을 지켜가며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PD 하느님, DJ 예수님」 | 바오로말